

10년 만에 수장 바뀐 하나금융

아시아 최고 금융그룹 향해...땀흘린 함영주號

회장 공식 취임...‘3대 전략’ 내놓아 비은행 부문 M&A 등 재편 가속화 고성장지역 투자 확대 글로벌 공략 디지털 인재 육성 등 ‘혁신’에 고삐 ESG 토대 사회적가치 실현도 앞장

함영주 하나금융 신입 회장이 25일 서울 명동 사옥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공식 취임했다. 하나금융의 수장이 교체된 것은 10년 만으로, 함 회장은 김정태 전 회장에 이어 3년간 하나금융을 진두지휘한다.

함 회장은 2015년 하나·외환은행 통합 이후 초대 KEB하나은행장을 맡아 통합 시너지를 조기에 가시화했다. 2016년부터 그룹 부회장을 겸직하며 은행뿐 아니라 계열사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넓혔다. 2020년 경영지원부문 부회장으로 그룹의 전략, 재무 기획 등을 총괄했으며, 지난해에는 그룹 경영의 핵심인 ESG 사업을 맡는 등 그룹 및 관계사에 대해 가장 이해가 깊은 ‘준비된 경영자’라는 평가다.

●아시아 최고 위한 3대 전략 제시

함 회장이 꺼내든 비전은 아시아 최고 금융그룹으로의 성장이다. 이를 위해 강점 극대화 및 비은행 사업 재편, 글로벌 리딩금융그룹 위상 강화, 디지털금융 혁신 등 3대 전략을 내놓았다.

먼저 강점 극대화를 위해 대면채널이 가진 휴먼터치의 장점과 디지털 채널혁신을 통해 온·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오픈채널을 구현하고, 자산관리



함영주 하나금융 신입 회장은 “하나금융을 아시아 최고 금융그룹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했다.

및 기업금융 경쟁력을 강화한다.

여기에 은행·증권 중심의 양대 성장엔진을 완성하고, 카드·캐피탈·보험을 주력 계열사로 양성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 비은행 사업 부문 인수합병(M&A), 그룹 내 관계사간 기업금융 협업 강화를 통해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를 재편한다.

글로벌 분야에서는 아시아 지역 중심의 현지화를 한층 강화하고 비은행 부문 글로벌 진출을 확대한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아시아 고성장 지역의 M&A와 자본투자를 확대하고 미주, 유료존 등 선진시장에서는 국내 진출 기업과 연계한 투자은행(IB)과 기업금융을 강화한다. 디지털 금융의 경우, 그룹 내·외부 역량을 하나로 연결하는 개방형 디지털

혁신으로 고객 및 사람 중심의 금융 플랫폼 회사를 그리고 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인재 육성과 적극적 투자·내재화로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혁신 스타트업 투자와 개방형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플랫폼을 통한 외부 디지털 역량을 적극 활용한다.

함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저성장 고착화, 고령화 가속, 금융업의 경계 해체 등 금융의 변곡점에서 주주·기업가치 제고, 투명·공정하고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통해 하나금융을 아시아 최고 금융그룹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가치 실현 앞장

그룹 미션인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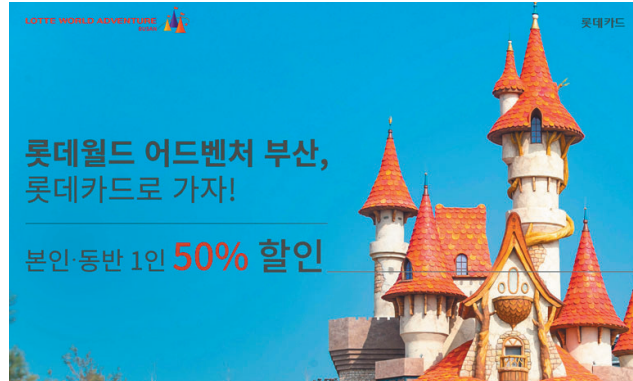
나누는 금융’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방향도 제시했다.

그중 ESG총괄 부회장 경험을 살려 ESG 경영 선도 금융사로 도약해 지속가능경영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선다. 이를 위해 공시와 심사 등 ESG 금융을 위한 기반 구축, 저탄소와 친환경 산업 투자 등을 확대한다. 어린이집 건립, 다문화가정 지원 등 사회적 책임활동도 지속 이어가며, 자회사 CEO 중심의 철저한 자율책임경영으로 투명경영을 강화한다. 아울러 고객 가치와 현장을 최우선하는 문화를 정착시킨다. 항상 현장 속에서 답을 구하고, 고객 가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 방침이다.

임직원에게는 “함께 이룬 과거 성과와 현재의 노력이 모여야만 진정한 하나금융의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며 “옛 것을 물려써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염구작신(染舊作新)을 제시했다. 이어 “조직을 먼저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인정받는 기업문화 속에서 그들이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생각과 행동이 젊은 조직, 다같이 도전하고 참여하는 역동적인 하나금융만의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나금융은 코로나19 확산과 산불 재해 등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취임식은 별도로 갖지 않기로 했다. 취임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룹 본점 사옥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비, 미화, 시설, 주차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 파견근로자에게 격려금으로 전달했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롯데카드, ‘롯데월드 부산’ 50% 할인 혜택

롯데카드가 5월 31일까지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개장을 맞아 전 회원 대상 프로모션(사진)을 진행한다. 롯데 개인 신용카드를 소지한 전 회원에 대상으로, 전월 실적 조건 없이 본인과 동반 1인에게 종합이용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월드 부산 현장 및 홈페이지에서 롯데카드 결제 시 종일권은 2만3500원, 오후 4시부터 입장 가능한 오후권은 1만6500원의 우대가로 구매 가능하다. 종합이용권 이용 시 롯데월드 부산 내 17종의 어트랙션을 모두 경험할 수 있다. 한편 롯데월드 부산은 31일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테마파크 내에 총 15만8000㎡ 규모로 오픈하는 야외 테마파크다.



국민카드 리브메이트, NFT 캐릭터 공모전

KB국민카드가 통합자산관리 플랫폼인 리브메이트 고객을 대상으로 NFT(대체 불가능 토큰) 창작 캐릭터를 공모하는 ‘제1회 NFT-EXperT 캐릭터 공모전’(사진)을 연다. 수상자에게는 창작 캐릭터 NFT 발행과 함께 최대 1000만 원의 상품, 캐릭터 굿즈(기념품) 제작, 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회원사 인턴십 제공 등의 특전을 제공한다. 만 14세 이상의 리브메이트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는 29일부터 4월 15일까지 리브메이트에서 하면 된다. 예선에서 30개의 작품을 추린 뒤 5월 말 본선에서 최종 10개 수상작을 선발한다.

우리은행,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확대

우리은행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실명확인 서비스를 기존 3개에서 47개 금융거래로 확대했다. 1월 27일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실명확인 업무에 도입한 이래로, 23일 영업점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거래에 적용했다. 기존 통장 개설과 환전 업무에 이어 통장 해지, 비밀번호 변경, 수표 발행, 자동이체 등록 및 변경, 전자뱅킹 신청, 보안카드 및 OTP 관련 업무, 원금 및 이자 상환 등이 가능하다. 회사 측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실명확인 서비스 확대로, 영업점에서 플라스틱 신분증 없이도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성 높은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최현만 회장, 대표이사 6연임 성공...“주주환원 정책 펼 것”

〈미래에셋증권〉

연 순익 사상 첫 1조 달성 등 성과 강성범 부사장 사내이사 신규 선임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이 6년 연속 대표이사 연임에 성공했다.

미래에셋증권은 24일 서울 중구 을지로 센터원빌딩 본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대표이사로 최 회장을 재선임했다. 2년 연속 영업이익 1조 원 돌파, 사상 첫 연간 당기순이익 1조 원 달성 등 우수한 경

영 성과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내이사로 최 회장과 이만열 사장을 재선임하고 강성범 부사장을 신규 선임했다. 이 사장의 경우 최 회장과 함께 각자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사외이사로는 각각 금융·경제 전문가와 정보기술(IT)·신성장 전문가로 꼽히는 성태운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와 석준희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를 신규 선임했다. 기존 정용선 사외이사와 이점마 사외이사

도 재선임돼 각각 이사회 의장과 감사위원회 위원을 맡는다.

적극적 주주환원 정책도 눈에 띈다. 이날 2021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승인돼 보통주 300원과 우선주 330원, 2우선주 300원을 배당하기로 했다. 배당금과 올해 소각한 자사주 총 금액이 약 3622억 원으로, 이미 주주환원 성향 30%를 넘어섰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최 회장은 “고객 동행 정신을 바탕으로 주주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미래에셋증권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한 최현만 회장. 사진제공 | 미래에셋증권

주주환원정책을 적극 펼칠 것”이라며 “그동안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성장과 안정성을 함께 추구해온 만큼, 앞으로도 고객과 투자자에게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3월 29일(화) 음력: 2월 27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웅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함부로 안간힘을 쓰지 말고 조용히 겨울철이 끝날 때를 기다려야 한다.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는 법이다. 오늘은 어떠한 노력도 통하지 않는 때이다. 당신도 기력의 회복과 길한 운세를 기다려야 한다. 매사 법을 지켜야 한다.	소가 등을 비빌 언덕을 만나는 대길한 운으로 널리 동지를 구할 수 있으며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유순한 자가 정당한 지위를 얻어 강력한 힘을 가지니 호응하는 자가 많아 기세가 등등해지는 운이다.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다.	매사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할 일이 있거든 재고하기 바란다. 기대만큼의 이득이 돌아오지 않겠다. 매대 운은 급하게 서두르면 손해는 보겠지만 매대는 이루어진다. 호랑이가 뱀을 만나면 망신살이다.	작은 것에 만족하라.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이일 저일 손해지 말고 안정된 직업이나 직장에서 꾸준히 노력하라.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힘들겠으나 작은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좋은 운이다. 이동은 금물이며 이사도 뒤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혼자서 일처리를 하지 말라.	승진 운이 있으니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되 경거망동을 삼가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계획을 실천에 옮겨라. 큰 발전이 기대 된다. 구직자는 원하는 곳에 이력서를 넣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친구들과 어울려 낭비할 수 있는 날이다.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가 등을 비빌 언덕을 만나는 대길한 운으로 널리 동지를 구할 수 있으며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유순한 자가 정당한 지위를 얻어 강력한 힘을 가지니 호응하는 자가 많아 기세가 등등해지는 운이다. 망신수가 따를 수 있다.	현재 상황은 어렵다. 소원하는 일은 비록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호운으로 접어들고 있으니 기대해도 좋겠다. 작은 돈은 들어오겠지만 지출도 심해서 수중에 돈이 남아 있을 사이가 없겠다. 낭비를 줄이는 게 좋겠다.	바라는 게 많은 날이다. 친구나 동료 간에 자칫하면 우의가 갈릴 수 있으니 내 주장을 굽히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하다. 양보한다는 자세로 생활한다면 모든 액을 피할 수 있겠다. 가정을 잘 보살펴라.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은 날이다. 남에게 원망을 듣기 쉬운 때이니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당장은 불안한 생각이 들겠지만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극적인 태도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운이다.	권태스러운 날이다. 이 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할 시기이다. 따라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며 남의 뒤를 쫓아간다는 식으로 생활한다면 별 무리가 없겠다.	정성을 다하면 작은 소원 성취는 되겠지만 큰 소원은 아직 성취될 때가 아니다. 무리한 투자나 확장을 삼가하고 수입을 늘리기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 영업적인 면에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는 날이다.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792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양형호	사건부장 고충철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